

# 사람 꽃 활짝 핀 세상은, 언제나 봄

A society with smiles in full bloom, Always spring

글. 정이숙 Jeong, Yisuk | 카피라이터 | (주)프랜티브 이사

3월 말까지도 간간이 찬바람 불어 옷깃을 여미게 하더니 4월이 되자 뺨에 닿는 바람이 마술처럼 부드러워졌다. 남녘의 동백과 매화 소식이야 진작에 들었지만 서울에서도 목련과 개나리, 진달래가 시나브로 피고 벚꽃이 와글와글 봉오리를 열기 시작했다. 어느새 통통하게 물이 오른 가로수 가지들도 거리에 연두빛을 뽐어내고 있다. 다행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다. 지난 겨울엔 몸과 마음이 유난히 추웠다. 많은 날들을 추운 광장에서 서성여야 했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졸였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봄을 기다렸다.

그런데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비단 올해, 나만 간절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몇 해 전 전파를 탔던 어느 통신사 광고는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카피와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TV CM의 영상은 원씬 원컷(one scene-one cut)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나뭇가지 끝에 가녀리게 고개를 내민 꽃봉오리 끝으로, 이슬 한 방울이 맺혔다가 또르르 굴러 떨어진다. 한 방울, 다시 한 방울 떨어지고 미풍이 불어왔는지 나뭇가지가 살랑 흔들린다.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정지된 그림처럼 보이는 영상 위에 카피가 나레이션 없이 자막으로 나타난다. BGM은 개울 흐르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음 그리고 단순한 편성으로 연주한 Over The Rainbow다.



2009년 1월 SK telecom TV CM 스토리보드

자막)           나뭇가지는 벌써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의 봄도  
                  곧 도착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2009년 1월 SK telecom TV CM 카피)

봄은 꽃의 계절이다. 분홍 하양 노랑 꽃들이 천지를 가득 채운다. 봄엔 밤길을 걸어도 어둡지 않다. 활짝 핀 목련이, 흐드러진 벚꽃이 달처럼 환하게 밤을 밝힌다. 꽃놀이 나선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뉴스가 들린다. 참지 못하고 나도 친구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아장아장 걷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아빠가 있다. 엄마는 한 걸음 앞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다정한 연인이 팔짱을 끼고 걷는다. 꽃보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느라 바쁘다. 서로 모르는 남인 양 한 걸음 떨어져 걷는 노부부도 보인다. 세 발자국쯤 떨어지면 할아버지가 멈추어 서서 뒤따라오는 할머니를 기다린다. 할머니가 가까이 오면 할아버지는 다시 몸을 돌려 앞서 간다. 보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봄꽃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유행가 가사를 실감한다. 바로 그 통찰을 담은 TV광고가 있다.

10여 년 전 집행된 SK telecom의 광고 두 편을 보자.

저요, 저요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 사진 위로 개나리가 살며시 나타난다. 사진 위로 나타나는 자막, ‘재잘재잘 노란 개나리’. 금방 웃음이 터질 것 같은 여고생들의 교실 사진에는 목련꽃과 ‘찬란한 봄을 기다리는 목련’이라는 자막이 뜬다. 자애로운 미소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수녀님 사진 위에는 ‘영혼까지 맑은 백합’이,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 있는 아내의 사진 위에는 ‘아직도 내겐 제일 예쁜 장미’라는 자막이 얹힌다. 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

는 할머니 사진 위에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라는 글이, 마지막으로 남북철도 연결 구간 열차 시험운행 사진에는 ‘8천 만의 가슴에 피는 무궁화’라는 자막이 꽃과 함께 써진다.



2007년 6월 SK telecom TV CM 스토리보드

자막) 재잘재잘 노란 개나리  
 찬란한 봄을 기다리는 목련  
 영혼까지 맑은 백합  
 아직도 내겐 제일 예쁜 장미  
 평생 자식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8천 만의 가슴에 피는 무궁화  
 NA) 사람보다 아름다운 꽃은 없습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2007년 6월 SK telecom TV CM 카피)

다른 편도 구성은 똑같다. 움직임 없는 흑백사진. 그 사진 속 사람과 어울리는 꽃과 자막이 사진 위로 뜨고 비틀즈의 ‘Let it be’가 BGM으로 흐른다. 광고 안에서 씩씩하게 리어카를 미는 새벽시장의 아줌마는 세상의 아침을 여는 나팔꽃이 되고, 전방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는 어두운 밤을 지키는 달맞이꽃이 된다.



2007년 6월 SK telecom TV CM 스토리보드

자막)           세상의 아침을 여는 나팔꽃  
                   사랑의 씨앗을 나누는 민들레  
                   씩씩하게 자라나는 들꽃  
                   어두운 밤을 지키는 달맞이꽃  
                   평생 자식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5천만의 가슴 속 무궁화

NA)            사람보다 아름다운 꽃은 없습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2007년 6월 SK telecom TV CM 카피)

오랜만에 이 광고들을 다시 보니 오십이 넘은 딸에게도 전화 할 때마다 밤길 조심하라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걱정하시는 엄마가 생각난다. 우리 엄마, 자식 밖에 모르는 미련한 해바라기 우리 엄마... 개나리 같고 들꽃 같던 내 아이들의 모습도 스쳐 지나간다. 가끔은 가시영귀 꽃처럼 아프게 찌르기도 하더니 이제는 옆에만 있어도 향기로 가득 차는 라일락처럼 훌쩍 자랐다. 생각해 보면 내 곁에는 사람꽃이 가득하다. 먼 나라를 떠돌다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반겨준 동백 같은 민승이, 실 새 없이 나를 웃게 하는 안개꽃 같은 춘희, 생색내지 않고 챙겨주는 제비꽃 닮은 원광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준 이름 모르는 풀꽃 같은 버스 기사 아저씨, 국화꽃 선배들, 백일홍 동료들, 수선화 후배들...

내게 꽃이 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꽃일까? 화려하진 않아도, 향기롭고 오래 지지 않는 꽃이 되어야지 하는 착한 다짐을 한다. 내가 꽃이 되고 내 곁에 사람꽃이 피어있는 한 나의 1년은 365

일 내내 꽃피는 봄이 될 것이다. 이런 착한 생각을 TV CM으로 만든 보험회사가 벌써 있다. 보험 광고의 카메라는 거리를 걷고 공부하고 일터를 지키고 웃고 생각하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을 담았다. 보험이라는 업의 속성상 엔딩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다. 그 위로 잔잔한 나레이션이 이어진다.

NA)           인생을 열 두 달로 나눈다면  
                   당신은 지금 몇 월입니까?  
                   찬바람 불거나 꽃이 피거나  
                   당신은 지금 무슨 계절입니까?  
                   가슴 속에 희망의 새싹이 자라던 때는  
                   삶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누구나 인생엔 사계절이 있다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험은 봄을 닮아야 한다고.  
                   봄이 누구에게나 찬란하고 따뜻하듯  
                   보험도 그래야 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험만큼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자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모두의 오늘에 찬란한 봄이 올 때까지-  
                   당신의 봄, 삼성화재

(2014년 12월 삼성화재 TV CM 당신의 봄 편 카피)



2014년 12월 삼성화재 TV CM 당신의 봄 편 스토리보드

카피라이터는 광고의 목적에 맞는 카피를 쓰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소망을 적어 넣기도 한다.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정말 '봄'이 되는 보험회사인지 광고만 보고 알 수 없지만, 저런 보험회사가 있으면 좋겠다. 저 카피를 쓰면서 자신은 지금 인생의 무슨 계절을 살고 있는지 생각했을 카피라이터의 야근하는 책상이 상상된다.

4월이다. 바람 따스하고 꽃들 다투어 피니 틀림없는 봄이다.

통장은 가난하고 지천명이 되도록 내세울 것 별로 없지만, 정다운 사람꽃 늘 곁에 피어 있고, 마음 속에 작은 소망 꺼지지 않았으니 내 인생도 틀림없이 봄이다. 1년 내내 끝나지 않는 봄이 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bVoHwLqLY>  
2007년 6월 SK telecom TV CM 꽃 1편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m2c9QYVaps>  
2007년 6월 SK telecom TV CM 꽃 2편 유튜브 링크 2

<https://www.youtube.com/watch?v=vaWb05izx80>  
2014년 12월 삼성화재 TV CM 당신의 봄 편 유튜브 링크